

96 맥아더 과학펠로우 6명 선정

워싱턴대 대니엘교수 등 25~33만달러 받아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존 D. 및 캐더린 T. 맥아더재단은 워싱턴대 동물학교수 토마스 대니엘을 포함한 6명의 과학자들을 1996년도 맥아더 과학펠로우로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25만달러에서 33만달러의 특별지원금을 받아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1981년 이래 맥아더 펠로우십을 받은 사람은 4백79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맥아더 펠로우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이나 신청마감같은 것은 없다. 대신 각 분야에서 나온 1백명 이상의 익명의 지명자들이 대상이 될 과학자, 사회활동가, 예술가 등을 천거한다. 이 명단은 13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발한 뒤 이 재단이 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천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수혜자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통고하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96년도 맥아

더 펠로우는 모두 21명이다. 이들이 5년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5만달러에서 37만5천달러인데 그 액수는 수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1996년도 과학펠로우인 아리조나대학 스투워드천문대의 천문학 교수인 로저 앤젤(55)은 33만달러, 스탠포드대학 생물학조교수인 바바라 블록(38)은 24만5천달러, 워싱턴대학의 동물학교수 토마스 대니엘(41)은 26만달러, 미시간주립대학의 미생물학교수인 리차드 렌스키(39)는 25만달러, 미시간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보니 맥로이드(45)는 28만달러 그리고 럿거스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네이탄 세이버그(39)는 25만달러를 받게 된다. 맥아더펠로우의 공통된 특징은 연구에 대해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스탠포드대학의 블록교수의 경우, 바다고기의 생활상을 종합적이

며 생물학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생태학, 진화, 유전학, 분자생물학 및 생리학에서 나온 기법과 개념을 조합한다.

맥아더 펠로우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캐더린 스톰슨에 따르면 펠로우전형에서는 학제간의 연구를 중요시하고 어떤 분야에서 종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는 연구자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혜자중에서 아리조나대학의 앤젤은 지상과 우주에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탐지할 계획이다. 스탠포드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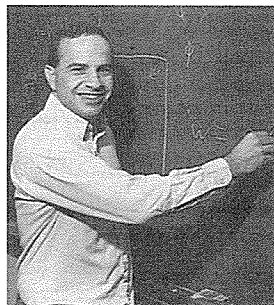
해양생물학자 블록은 연구지원금으로 다랑어에게 위성꼬리표를 붙일 계획이다. 워싱턴대학의 대니엘은 동물의 비행과 동작에 관한 생체역학을 연구한다.

미시간주립대학의 렌스키는 1년간 프랑스로 건너가 동료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다. 미시간대학의 맥로이드는 사회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인류학의 개념을 조합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끝으로 럿거스대학의 이론물리학자인 세이버그는 여러가지의 난해한 개념을 통합하는 연구를 한다.

— 맥아더 과학펠로우賞의 특징 —

수상자는 지원금사용처 제한 안받아
이들 학자금내고 연구만 전념한 例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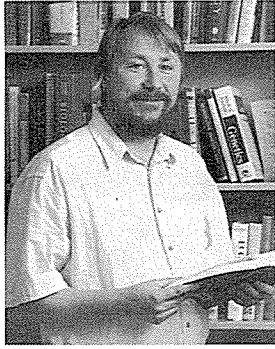


▲ 네이탄 세이버그



▲ 토마스 대니엘

한편 맥아더펠로우십 수혜자는 아무 조건도 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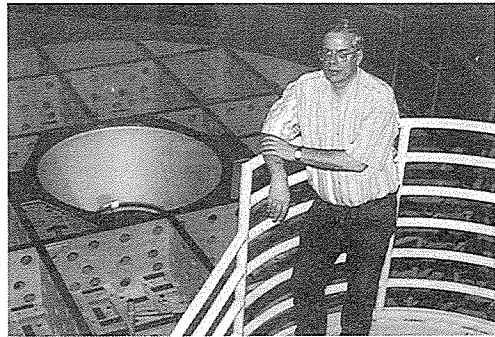
▲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보니 매크로이드,
리처드 렌스키,
바바라 블록

않는 지원금을 사용한 뒤 어떤 보고나 사용한 내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스티븐은 “가장 좋은 투자방법의 결정은 수혜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수혜자들중에는 생계의 걱정없이 모든 시간을 연구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으로는 연구비를 얻기 어려운 위험하고 학제적(學際的)인 연구프로젝트에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1981년도 펠로우였던 컬럼비아대학 국제학과장

이며 록펠러대학 인구문제연구소장인 조엘 코헨은 이 지원금 덕분에 두 자식의 학자금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맥아더지원금이 없었다면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그의 저서 「지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2년도 펠로우인 스탠포드대학 생물학교수인 샤론 룽은 맥아더지원금으로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과 함께 전자생리학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위험한 실험을 하자면 연구자금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 맥아더펠로우십 덕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맥아더재단

은 매 18개월마다 시카고에서 재회의 모임을 갖고 모든 펠로우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과학자들은 예술가, 문헌가, 사회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로저 앤젤

美 화학의 97프리스틀리賞 수상

상무부 차관 매리 굿, 여성으로 첫 영광

미 상무부 기술담당차관인 매리 굿(65)은 미국화학회가 주는 최고의 상인 1997년도 프리스틀리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여성이 된다. 굿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화학 전반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을 역설해 온 굿은 여러 자문직으로 있으면서 4명의

대통령 밑에서 일했다. 그녀는 조지 부시의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멤버였고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시스템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멤버였으며 1988~1991년간 국가과학원의 원장직을 맡았다. 학계를 떠나기 전인 1990년까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과 뉴올리언스대학에서 가르쳤다. **SD**